

도큐멘테이션 디자인의 提言

(學術雜誌도 情感을 살리자)

裴 衡 璠
KORSTIC 情報處理部 次長

1. 序 文

最近의 學術雜誌는 도큐멘테이션의 思考方式에 따라 編輯하는 傾向이 漸次로 增加하고 있으며, 索引이 지나고 있는 各種 効用性を 重要視하고, UDC分類法이나 DC, NDC分類法을 活用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것은 學術雜誌의 飛躍的인 躍進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무언가 雜誌 全體(表紙, 目次, 本文, 版權紙 등 모두 포함하여)의 스타일이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新刊書가 配本되었을 때도 新鮮한 感覺을 주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이러한 경향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學術雜誌는 元來가 딱딱한 것이라는 形式化된 弊端이 現在까지 放置되어온 結果라고 하겠다. 도큐멘테이션의 規準에 忠實하고 校正이 完璧하면 될 것이며, 때때로 表紙 디자인을 바꾸고 紙質을 改良하고, 可能하다면 原色寫眞을 넣으면 된다. 雜誌를 좋게 한다는 것은 單純히 테코레이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는 確實히 훌륭하게는 될지 몰라도 定期的으로 刊行되는 雜誌生命(使命)의 基本的 解決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學術雜誌는 受動的이고 賦與된 資料를 整理하여 發行하고, 蓄積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需要者의 意慾(意志)에 期待를 걸 뿐이어서, 過去의 낡아빠진 實用만을 爲主로 하는 딱딱하기만 한 學術雜誌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도큐멘테이션의 눈부신 活動에 따라, 學術雜誌도 視覺的인 面에 대해서 積極的으로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2. 學術雜誌의 스타일(도큐멘테이션 디자인)의 確立

學術雜誌는 最新의 情報를 完全히 캐치하고 合理的으로 消化시켜 나가는, 바로 現代人의 頭腦로서의 役割을 하는 位置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學術雜

誌는 낡은 藝術性 또는 頑固한 實用性 爲主에서 脫皮한 새로운 方向性의 確立을 서둘러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즉 面目을 새롭게 한 能動的인 一貫된 스타일의 確立이 절실히 要望된다. 그런데 學術雜誌의 一貫된 스타일이란, 恒常 똑 같은 紺色 洋服을 입은 紳士와 같은 單純한 스타일은 아니고, 各號의 形式이나 色彩가 視覺的 手段에 의하여 그때마다 雜誌에 참신한 性格을 賦與하고, 各號의 必要性和 視覺效果를 堆積시켜 雜誌를 獨自的인 스타일로 形成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形成된 스타일은 積極的으로 讀者들에게 作用하여, 讀者는 最新의 全情報를 簡潔하게 把握한 狀態에서 그 活動(研究)을 開始할 수 있게 된다. 副題에서 情感을 살리라고 한 것은 多額의 費用을 들여 表紙나 表紙의 그림에 多色印刷를 使用해서 커머셜 디자인에 맡겨 流行化된 商業的인 레이아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學術的이고, 合理的인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큐멘테이션의 立場에서의 디자인, “도큐멘테이션 디자인(Documentation Design)”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部門을 確立할 것을 主張하는 바이다.

3. 藝術的 表現과 製作技術

“國際標準化 機構의 推獎規則(ISO Recommendation)” 속의 定期刊行物의 레이아웃(ISO/R8: Layout of Periodical)의 序文에——이들의 規則은 全部가 同一하게 重要的인 것은 아니며, 속에는 藝術的 表現이나 製作技術 또는 廣告 등의 概念과는 다른 것도 있는데, 가능한 限 이들 規則에 準據할 必要가 있다. (These rules are not all of equal importance, and some of them may be contrary to certain conceptions concerning artistic presentation, the technique of production, or advertisement. In such cases, they should be followed as closely as possible.)——고 했는데, 廣告란 矛盾된 點이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藝術的 表現이나 製作技術은 基本的으로 矛盾되지 않는다, 學術雜誌

는 情報源으로서의 그 레이아웃을 如何히 視覺的 및 合理的으로 處理하여 發表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單純 도큐멘테이션(人間의 視覺, 感情을 無視한 도큐멘테이션)과는 서로 相反되는 點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큐멘탈리스트는 커머셜디자인이란 것과는 달리 도큐멘테이션디자인이라는 立場에서 그 矛盾을 克服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 製作技術인데, 레이아웃 맨(Layout man)은 需要者(讀者로서의 研究者, 逐次資料製作者 및 圖書館員)를 對象으로 할 뿐만 아니라 印刷(技術)所의 繁雜한 工程上에도 그 知識과 綜合的인 開發이 必要하다. 例컨대 組版의 單純化, 그리고 이미 組版된 게라 校正時에 論文의 追加나 削除 등의 變更이 생겼을 때도 簡單하게 빨리 組版을 變更할 수가 있으며,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레이아웃의 合理化가 要望된다. 그리고 옵세트 印刷技術이 發達한 今日, 每號마다 發表해온 活版組 論文을 하나로 묶어서 풀과 가위를 가지고 옵세트 印刷로써 單行本으로 하여 再現하는 것도 不可能하지 않다. 이러한 일들을 可能케 하는 레이아웃의 開發도 要望된다. 以上 製作技術과 矛盾된다느니 보다 오히려 製作技術을 理解하고 可能性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4. 도큐멘테이션 디자인의 定義

學術論文을 널리 發表할 때에는 그 目的(整理, 分類, 傳達, 檢索 등)을 完全하고 簡潔하게 達成하기 위하여, 도큐멘테이션에 準據한 視覺的 立場에서의 技術의 모는 것을 도큐멘테이션 디자인이라고 한다. 도큐멘테이션 디자인은 雜誌일 境遇, 그 構成上 視覺的 面에서 繁雜과 混亂을 處理하는 것을 任務로 한다.

5. 레이아웃의 實際上的 諸問題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이제부터 레이아웃의 實際上的 諸問題와 特히 도큐멘테이션의 비주얼한 面에 대해서만 略述하고, 全般的인 도큐멘테이션의 規定에 대해서는 省略하겠다.

(1) 表紙

表紙는 雜誌의 얼굴이므로 보기에 좋았다든가, 構成이 잘못될 것 같으면 困難하다. 表紙는 雜誌의 特性을 이미지·업하는 데 重要的 役割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恒常 新鮮한 感覺을 갖게끔 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月刊, 隔月刊, 年 1~2회 發行되는 것 등, 各各 需要者에게 時間的인 間隔의 差異가 미치는 心理的인 面을 無視할 수가 없다.

學術雜誌는 大衆雜誌와는 달리 每號 새로운 表紙를

한다던가 색깔을 바꿀 必要는 없고, 도리어 恒常 같은 색깔, 같은 스타일의 表紙로 하여 어디서 보나 곧 “아! 그 雜誌로구나.”하고 느끼게 하는 便이 좋은데, 이것을 單純히 解釋하는 것은 危險하다. 같은 색깔을 各號마다 낸다는 것은 理想的이지만, 이때에는 他寫眞이나 誌名 등과의 構成에 많은 注意가 없을 것 같으면 生氣가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學術雜誌에 있어서의 같은 스타일의 表紙란 統一된 이미지의 堆積으로서 이루어지는 表紙스타일의 確立을 말하는 것이다.

(2) 本 文

本文을 레이아웃함에 있어서, 먼저 雜誌의 크기, 活字의 크기, 몇 字, 몇 行, 또는 一段組인가, 多段組인가를 決定한다.

잘못된 點이 생겨서 그때마다 變更해서는 困難하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決定하면 틀린 것이 있더라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도 困難하다. 如何든 決定에 앞서 모든 點에서 充分한 吟味가 必要하다. 雜誌의 크기, 活字의 號數, 段組가 決定되면 다음은 組의 레이아웃이다. 本文의 活字組에 관한 일은 實로 번거로운 일이다. 그런 故로 原稿가 모이면 印刷物이 될 때까지의 工程을 印刷所에 맡기고 校正만으로도 벅차게 되어 期間내로 만들면 된다는 狀態를 몇 년이고 繼續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等閑視하게 된 理由는 예로부터 活字組의 規則이나 形式이 累積, 複雜化하여 現在까지 放置되어온 結果, 번거로운 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學術雜誌의 레이아웃은 도큐멘테이션 디자인에 의하여 비주얼한 面에서의 整理作業이 必要하게 된 것이다.

一般的으로 大標題는 14, 16point 고딕體로서 몇 行分을 取하고 左右의 位置를 中心으로 삼고, 中標題는 12point 고딕體로서 亦是 左右의 位置를 中心으로 字間隔도 各各 文章의 長短에 따라 바꾸고 있다. 小標題는 고딕體로서 한 字 낮추어 始作하고 各各 아라비아數字로서 順位를 달고 있다. 寫眞, 凸版, 表組의 標題는 左右의 位置를 中心으로 하여 字數의 過多에 의하여 字間隔을 바꾸고 順位數字는 고딕體로서, 實로 複雜하고 細密한 規則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書籍, 雜誌도 文章의 한 區分에는 句讀點을 달아 行을 바꾸고, 다음 文章은 한 字 낮추어서 始作하는 習慣이 되어 있다.

文學作品일 때는 文形이 單純하므로 文章 첫시작에서 한 字 낮추어 效果를 다하고 있다.

文形이 複雜할 때는 行의 처음 부분이 凸凹이 너무 심하게 되면 圖番號나 圖說, 中小의 標題를 구하기 힘들게 된다. 中小의 標題는 中心을 피하고 行初부터 始作하여 小標題만 한 字 낮추고 있다. 字間隔도 文章의 過

多에 의하여變化시키고 있지 않다. 圖番號는 左右의 中心을 피하고 行初에 맞추고 있고, 圖의 說明文은 本組로부터 行間隔을 채워서 號數도 적게 하여 組를 하나의 塊(Mass)로서 取扱하여, 보기 쉽게 한다. 그로부터 文章의 始作은 한 字 띄우는 習慣으로 되어 있었는데, 內容의 區分은 句讀點을 달고 行을 바꿈으로써 그 役割을 다하고 있으므로 文章의 첫 字를 낮추는 것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이것은 文形의 繁雜化를 피하고 視覺적으로 整理한 한 方法이다. 印刷技術도 이 方法에 의하여 簡易하게 되었다. 그리고 大標題는 1段 全部로 하고, 副題, 著者名, 所屬名과 中小標題를 묶어서 掲載하여 內容의 把握을 容易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抄錄을 掲載할 때의 한 方法이 된다. 空間欄은 編輯技術의 缺陷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空間을 메꾸거나 카야드를 넣어서 文尾에 “○○페이지로 계속”이라고 페이지의 充實을 期하는 習慣이 있으므로 그 視覺的 效果를 살린 레이아웃을 했으면 한다.

(3) 其 他

表紙의 그림, 표제지, 目次, 版權紙 등으로부터 페이지헤드, 논블에 이르기까지 雜誌의 必要性和 視覺表現의 點에서, 各 雜誌의 性格에 따라 스타일을 再檢討할 必要가 있다.

(4) 廣 告

學術雜誌에 商業廣告를 掲載하는데 대해서는 可能한 限 學術雜誌로서의 目的과 品位를 떨어뜨리지 않게끔 單純한 社名, 品名의 나열을 피하고, 視覺적으로도 지루한 디자인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讀者의 研究를 위한 有益한 資料的인 廣告는 技術交流의 意味에서도 自進해서 掲載할 만한 것이다. 廣告의 掲載페이지의 位置는 雜誌 그 자체의 스타일에 크게 影響을 미치므로 注意를 要한다. 目次, 抄錄, 表紙그림, 本文보다 廣告가 먼저 눈에 띈다든가, 目次가 廣告 사이에 끼여서 찾아내기 힘들게 되는 것은 商業誌라면 몰라도 學術雜誌로서는 困難하다. 될 수 있는대로 版權紙 다음에 한데 묶어 掲載하여, 本文의 논블과 區別하여 또 하나의 논블을 만들어 廣告索引의 便宜를 가지게 할 程度의 關心은 가져야 할 것이다. 本文의 餘白 속에 별도로 테두리를 하여 廣告를 실는다든지, 表紙中에 넣는 것은 例外이다. 雜誌의 內容에 直接關係가 있는 宣傳記事,

講習會, 講演會, 新製品 등에 대해서는 廣告와 別途로 報告欄, 製品뉴스欄의 別項을 만든다.

(5) 일러스트레이션

寫眞, 統計圖, 圖表, 커트, 設計圖, 配線圖, 그 밖의 說明圖에서, 區分에 使用하는 線에 이르기까지의 活字以外的 것을 包含한다. 이것은 모두 直接視覺에 呼訴하는 것이므로 表現方法에 대해서도 注意해야 할 點이 많다. 勿論 學術雜誌의 스타일에 커다란 比重을 차지한다.

이 分野에서도 “틀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無關心으로 取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本文 속에서 1章 끝의 空白을 과선으로 두르는 것은 커트 등으로 메꾸고 大標題를 과장하기 위해서 선으로 두르는 것은 實用性 뿐인 技術이다.

印刷技術이 始作된 當時에는 嶄新한 手段이었을지도 모르지만, 現代의 膨大한 情報를 消化하기에는 너무나도 形式的 方法이고 必要性도 없으며, 不合理한 點이 많다. 機械設計圖 등도 트레이스라고 하는 靑寫眞用의 트레이스技術으로써 掲載하는 경우가 많다. 靑寫眞用 트레이스는 주로 現場에서 使用할 目的으로 作成하는 것이지만, 出版時에는 說明文과 같이 몇 분의 1로 縮小되어 後世까지 研究用, 參考用으로서 保存하는 것이므로 靑트레이스와는 다른 表現方法을 取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주로 일러스트레이터의 問題인데 도큐멘탈리스트가 指導 參加하여 解決할 일이다. 그리고 이 도큐멘테이션의 規準에 의한 여러 가지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機會에 具體的인 實例와 함께 記述하기로 한다.

또 本文組, 目次 등의 레이아웃의 實際에 관해서도 部門別(工學, 醫學, 農學 등) 그리고 그 表題, 分類, 標題語, 抄錄, 英文 등의 過多長短에 의하여 스타일도 一元的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多樣하게 된다. 그 具體的 實例는 다른 機會에 記述하기로 한다.

以上 學術誌의 製作에 從事하는 立場에서 今後 情報量이 急速하게 增大할 것을 생각하면, 一次資料의 作成者인 科學者, 技術者, 學術雜誌의 編輯者, 逐次資料 作成者가 서로 協同하여 비주열한 部門에도 도큐멘테이션의 立場을 確立해야 할 것을 切感하고, 적은 經驗과 知識에도 불구하고 감히 提言하는 바이다.